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Wan Hai mulls deal for neo-panamax boxships that could take 2021 orders over \$1bn

대만의 Wan Hai가 11억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신조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됨. Wan Hai는 13,000TEU급 컨테이너선 최대 6척의 건조를 두고 현대중공업과 협상중이라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은 4월 중에 체결될 전망이다 인도기한은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Seaspan snaps up 15,000-teu boxships in ongoing buying spree

Seaspan Corp가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됨. 최근 15,000TEU급 scrubber 탑재형 컨테이너선을 인수하며 3개월 간 12,200~24,000TEU급 컨테이너선을 19척 구매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Boost for shipping as Biden trade pick says China 'must deliver' on phase one pact

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 지명자가 미-중 간 무역협약에서 중국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탱커 및 가스 해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됨. Katherine Tai는 US Senate Finance Committee 자리에서 "China needs to deliver on the promises"라며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드러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Awilco moves into offshore wind vessel sector with newbuilding order

Awilco가 중국의 China Merchants Heavy Industry에 해상풍력설치선 2+4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옵션분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은 3.53억달러라고 보도됨. 노르웨이 선주 Awilco는 이번 발주를 시작으로 해상풍력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EEXI가 탱커에 줄 과제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존선박연비지수(EEXI)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ABS에 따르면 현재 약 7천척의 탱커가 EEXI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체 기준 충족 옵션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임. 이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안에는 EPL(Engine Power Limitation)으로 알려진 추진 동력 감축 방안이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S&amp;P 시장 활기

벌커, 탱커, 컨테이너선 등 3대 선종의 중고선 매매(S&P)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됨. 최근 몇 달 동안의 거래량 만으로 이전 몇 년 동안의 거래량을 웃돌고 있다고 보도됨. 컨테이너선은 정기 용선료 상승, 용선 기간 장기화 등으로 거래가 활발해졌으며 벌크선은 2010년 이후 운임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데 자극을 받아 거래가 늘어났다고 보도됨. (선박뉴스)